

여수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다채

7월 22일부터 10일간 학술대회·부대행사 등 펼쳐져
‘2026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COP33 유치 지원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10주년을 맞아 여수시가 오는 7월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친다.
여수시는 올해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을 맞이해 박람회 성공 개최의 영광을 재현하고 박람회 이후 달라진 여수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10주년 기념사업은 오는 7월 22일부터 10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비롯해 여수 지역 곳곳에서 열리며 시민 화합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와 학술행사, 부대행사로 기획됐다.

기념사업은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총 12억원이 소요되며,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전남도, 여수시가 주관하는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 30명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기념식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당시 유공자 및 자원봉사자 등을 초청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미디어와 여수 선언 계승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를 위한 남해안·남동권 화합 퍼포먼스도 함께 기획 중이다.
부대행사는 박람회 정신 계승 및 여수 선언 실천을 위한 환경보호 프로그램,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와 COP33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민역량 결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박람회 10주년을 맞이해 여수 선언 실천과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돌아보고, 여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전 시민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로 진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군,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재개

1차추경 13억 2000만원 편성

고흥군이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소진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재개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신청 건부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억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순차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이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등 정액 지급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은 자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고흥군은 2020년 114건 7900만원, 2021년 1063건 7억3100만원, 2022년 2월까지 785건 4억8700만원을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다. 3월은 1972건 5억7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벚꽃 보며 지친 마음 힐링하세요”

보성군, 대원사 벚꽃길 전면 개방

보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광객 안전을 위해 올해도 벚꽃축제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식 축제는 개최되지 않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상춘객들이 자율적으로 벚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원사 벚꽃길은 전면 개방한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갓길 주차장 등 교통 단속과 노점상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 대원사 벚꽃길.

보성군 관계자는 “성큼 다가온 2022년도 봄의 정취를 느끼며 보성을 찾은 상춘객들이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대원사 벚꽃길은 5.5km의 벚꽃길을 테크로드로 걸을 수 있어 상춘객들의 봄 여행지로 손꼽힌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24일까지 시티투어 ‘벚꽃여행’

순천시가 봄맞이 시티투어 ‘벚꽃여행’을 선보인다.
순천시는 시티투어 봄철 기획코스 벚꽃여행을 오는 24일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벚꽃여행은 벚꽃 종류 별 개화시기를 고려해 왕벚꽃여행과 겹벚꽃여행으로 구분 운행한다.
왕벚꽃여행은 왕벚나무로 조성된 순천시 대표 벚꽃 명소 동천과 상사호를 주요 코스로 하고 겹벚꽃여행은 풍성한 겹벚꽃으로 유명한 선암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벚꽃여행은 총 8회로 왕벚꽃여행은 송광사 경유 코스와 선암사 경유 코스로 나뉘어 각 2회, 겹벚꽃여행은 4회 진행된다.
이용객들에게 증명하는 벚꽃머리핀을 활용한 인증사진과 지정 해시태그를 SNS(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20명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순천시 바로예약(www.suncheon.go.kr/veyak)에서 세부 일정, 이용 요금, 코스 소개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다.
전화 문의는 해성여행(1522-8139)으로 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티투어 벚꽃여행을 통해 보다 많은 여행객들이 순천의 아름다운 벚꽃 명소를 알게 되길 바란다”며 “시티투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과 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경제청과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제공>

광양만권 전략산업 미래 먹거리 발전

광양경제청·전남테크노파크 협력

광양만권의 대표 투자유치 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과 산업육성 전문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이하 전남TP)가 지난 5일 간담회를 갖고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양 기관은 글로벌 산업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광양만권의 전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뒤 공동의 대처방안 마련에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
이어 역점을 둔 2차전지 부품 및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에너지 생산을 통한 탄소중립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비롯해 화학·철강 등 전략산업을 클러스터로 묶는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등 광양만권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 공유 및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 광양경제청과 전남TP 양 기관의 핵심전략에

대해 상호 소통하는 업무 연찬회를 상반기 중에 개최 예정이다.
신소재·화학·철강·에너지산업 등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 실무적인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광양만권은 전남 전체 경제의 거점과 같은 지역이므로 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국 전남TP원장은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전남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철강·화학 산업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대응전략을 실행하는데 전남TP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전남TP 산하 신금속산업센터를 방문해 마그네슘 생산과 기계부품 가공 현장을 둘러보면서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고급 인력양성 및 관련 기술 개발의 시급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법씨 병해충 방지 소독 지원

읍·면농업인상담소 8개소

법씨 자동온탕소독기 설치

구례군은 법씨 종자로 전염하는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 친환경농업단지 확대를 위해 법씨 자동온탕소독기를 읍·면농업인상담소 8개소에 설

치, 본격적인 법씨 소독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례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친환경농업단지 및 일반단지에 법씨소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7일부터 2100ha면적에 63 t의 종자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된 종자를 5kg씩 나뉘어 60℃의 물에 10

분간 담근 후 다시 꺼내 찬물에 충분히 종자를 식힌 후, 침종과 최야의 과정을 거쳐 육묘를 하면 키다리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버잎선충 등 각종 종자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법씨 온탕소독을 통해 병해충의 밀도를 경감시켜 고품질 쌀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는 등 앞으로로 적극적으로 현장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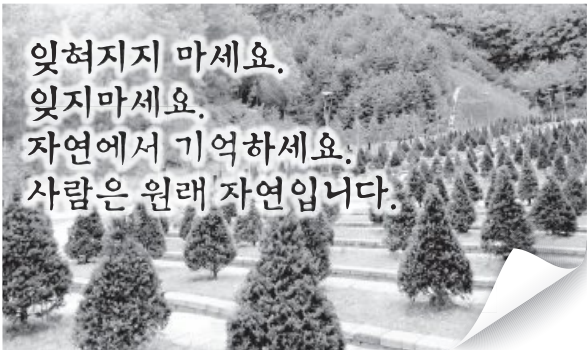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